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I)*

-북한의 의·식·주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 (III)*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은영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부교수 김대년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박영숙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춘

교수 이기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전임강사 최연실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 l Univ.

Prof. : Rhee, Eun-Young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 Housing, Seowon Univ.

Assoc. Prof. : Kim, Dae-Nyun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Soonchunhyang Univ.

Assoc. Prof. : Park, Young-Sook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 l Univ.

Prof. : Rhee, Kee Choon

Prof. : Lee, Ki-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 l Univ.

Prof. : Yi, Soon-Hyung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Sangmyung Univ.

Full-time Instructor : Choi, Younshil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 공모과제의 일부임.

<Abstract>

Living culture, which is a pattern of peoples' everyday living, is influenced by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as well as ideology of the society.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have been segregated during the past 50 years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ideologies, resulting different living cultures, even though those two societies share the same traditional culture.

This project was develop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living cult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heir successful integration. The third part of the project was concentrated on finding out the current living culture of North Korean families.

Ba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ten peopl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fter 1990, empirical survey with 158 subjects was conducted. The subjects with various demographic backgrounds were asked about lifestyles concerning clothing, food, housing that they experienced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This study revealed differences in many aspects of living cultur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relationships were suggested in three lifestyl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ground for more information to the following study that will explore the cue of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in living culture.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한반도 안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 체제를 형성한 남한과 북한은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분단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질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은 사회 전반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주로 가정생활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생활문화는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영역이다. 즉, 생활문화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생활은 가장 일상적 차원에서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생활문화 영역은 이처럼 이질화 현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전통적인 요소에 기반한 동질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통일 이후 문화통합의 단초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구체적인 생활세계와 연관시켜 문화통합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려는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 실태 및 통합

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통일 이후 민족 화합의 전망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총합으로 표현되고(진경수, 1994), 생활문화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의식(意識)과 양식(樣式)의 총체를 의미한다(박혜란, 1996).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에서의 생활문화를 구성해주는 틀을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양식으로 선택하였다.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규정하면서 생활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세기에 걸쳐 남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정신적, 문화적 단절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의식과 양식에 영향을 미쳐, 의·식·주 생활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남북한사회 이질화의 심화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기반하여, 이러한 이질화 현상의 극복을 생활문화의 통합을 통해 모색해 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의 생활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구체적인 생활문화 영역으로 나누어 탈북자들과의 경험적 조사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북한 가정생활의 이질화 현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과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관찰·인식함으로써 상대문화의 인정과 수용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서는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의 생활문화의 통합과 창조 등을 궁극적으로 탐색해 보는 일은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실제적·구체적 차원에서 모색해 본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생활양식의 의·식·주 생활양식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탈북자들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이기춘 외, 1997; 이기춘 외, 1998)의 후속적 성격을 갖는 본 연구는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생활문화의 이질성을 검토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문화의 개념

문화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며, 그 정의는 학자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문화의 정의는 '사회의 성원으로 획득한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풍습 및 기타의 기능·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Tylor, 1958) 혹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의미·가치규범들과 이 의미들을 객관화하고 사회화하고 전달하는 매체'(Sorokin, 1947)이다.

문화가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일차 환경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인식의 틀(perception frame)과 행동의 틀(behavioral pattern)이 모두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이다(Rummel, 1975). 문화는 이렇듯 인간사회의 집단적 고유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공동체의 개성이며, 또한 공동체와 공동체를

구분하는 차별적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문화를 보는 시각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전경수, 1994). 하나는 유형론적 입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건들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인간행동과 사고의 심층구조를 문화로 규정한다. 다른 하나는 맥락론적 입장인데,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심층구조보다는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생활들을 문화로 규정한다. 이들에 의하면 문화는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두 시각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남북한 사회에서의 생활문화는 한편으로는 각 사회의 역사적인 변화와 더불어 추출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나 사고의 구조적 유형이 존재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유형론적 입장이든 맥락론적 입장이든간에 생활문화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의 조건에 의해서 규정지워짐을 알 수 있다. 즉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는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상위문화가 규제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오기성, 1997; 정근식, 1996).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사회를, 서로 다른 이념에 바탕을 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를 구축하는 각각의 독립된 공동체로 발전시켰고,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남북한사회는 차별화된 이념적 토대에 바탕을 두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므로, 지난 몇 십년 동안 축적된 이질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화된 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 남북한 사회의 성원들은 각각 다른 존재양식, 생활양식을 굳혀 왔으며, 이는 개인의 의식(意識)에 반영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컨대, 이처럼 한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이데올로

기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은 전반적인 제도와 문화적 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이념적 토대와 사회경제적 기반은 구체적인 생활영역에까지도 효과를 파급시켜 그 사회성원의 의식이나 행태를 규정하기도 한다.

문화 중에서도 생활문화란 개인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각 집단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과 생활양식의 총체(박혜란, 1996)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생활문화란 가정생활에 관련된 가치나 태도 등의 의식의 측면과, 아울러 실제의 의·식·주 생활, 시간관리, 경제 및 소비, 아동사회화, 가족관계 등의 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활문화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며(심영희, 1996), 상징적 재생산 혹은 사고방식의 구성 등을 포함한다(Harbermas, 1987).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세계는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세계와 달리 잘 드러나지 않는 세계이다. 이러한 일상적 공간은 이성에 의한 합리적 생활전략 뿐 아니라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박재환 외, 1994)이며, 삶을 안정시키는 견고한 생활공간(김왕배, 1995)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생활문화는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영역이다. 특히 생활문화는 일상적 삶이 행해지는 소재, 즉 공간과 시간, 의복, 주거, 음식, 출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윤택림, 1996)로서,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의 근접환경(유아보육시설, 교육시설, 의료 및 보건 시설, 오락 및 여가시설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문화가 펼쳐지는 가장 구체적인 영역인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을 포함한 근접환경 영역이, 남북한사회에서 분단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문화통합의 대상으로서 포섭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는지를 탐색하는 일은 필요하고도 의미있는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2. 의, 식, 주 생활양식

생활문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생활양식은 사람들

이 따르는 규범이나 관습으로서의 행동문화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오기성, 1997). 이러한 생활양식은 일상적인 생활수준에서 가장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삶의 질'과 긴밀한 연관을 맺을 수 있을 것(박혜란, 1996)이다.

생활양식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의·식·주 생활양식을 다룬다. 먼저, 의생활양식을 살펴보면, 한 사회 안에서 착용되는 의복은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경제적 특성, 정치적 상황, 기술적 발전 정도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의복을 통하여 그 사회의 여러 측면을 해석할 수 있다. 의생활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특성 뿐 아니라 의복의 구매, 소유, 사용을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공급의 측면, 즉 재료나 기술, 산업적인 측면까지도 연결된다. 또한, 현재 그들의 의생활이 어떠한가에 덧붙여 역사적 맥락에서의 의생활 변천과정 또한 탐구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식생활양식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내려오고 있다. 식행태(diet behavior)는 대단히 복잡하여 몇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식생활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다 발전된 생활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방법이나 식품의 선택 등 식생활을 개선하려고 한다. 인류학자 Mead는 식사형식(diet pattern)에는 맛, 냄새 등의 생리적 요소와 비료 사용, 타작 방법, 식품 저장과 가공 등의 문화적 요소, 교통 수단, 식품 분포 등의 경제적 요소, 임신, 질병, 종교 등의 사회 문화적 요소, 조리 방법 등의 식생활 교육과정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으며 이와 더불어 식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식생활의 변화는 가정, 특히 주부의 영향이 크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대중매체, 영양 지식, 직업 및 경제 수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주생활양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주거문화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이나 의식, 가치나 규범, 관습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에서 문화란 인간이 접하는 다양한 환경 중에서 인위적인 환경부분을 의미하는데,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건 간에 반드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주생활양식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유형과 규모, 주거생활수준, 주거기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북한생활을 체험했던 국내 거주 탈북자 집단이다. 조사대상자 특성의 고른 분포를 위해 연령과 직업, 교육수준, 탈북전 거주지(평양 대(對) 지방) 등을 고려하였으나, 자료의 참신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199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의 선정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탈북자의 선정과 접촉에는 이들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우편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북한의 생활문화를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북한의 생활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은 북한생활과 각 생활양식 영역(의·식·주 생활)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연구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이 질문들은 북한 생활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에 접근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들과 폐쇄형 질문들이 혼합되었는데, 의생활양식은 25개, 식생활양식은 20개 문항, 주생활양식은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1) 의생활양식

한복착용 및 소유실태 3개 문항, 의복 소유실태 5개 문항, 유행현상 5개 문항, 의복마련방법 3개 문항, 의생활관리 및 만족도 6개 문항, 의복의 상징성

1개 문항, 남한과의 비교 2개 문항

2) 식생활양식

건강, 체형에 대한 선호도 3개 문항, 식품섭취 3개 문항, 식생활 전통 4개 문항, 조리된 음식 4개 문항, 시장보기와 부엌설비 4개 문항, 남한과의 비교 2개 문항

3) 주생활양식

주택일반 8개 문항(주택유형, 주거규모, 주거공간 구성, 입사증 제도), 주택설비 5개 문항, 주거생활 경험 8개 문항(주거만족과 주거의식, 주거행동)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 문항 작성 및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조사는 1997년 12월에 10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면담을 하고 질문지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탈북자들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부탁하였다. 다음 단계로 이 담당자에게 질문지를 회신용 봉투와 함께 발송하여 탈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 탈북자들이 응답을 해서 우편으로 회신을 하는 형식으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총 2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나, 163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그 중 부실기재된 5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8부의 질문지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목적에 맞추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인 통계치를 주로 사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이기춘 외

(1998)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북한의 의생활양식, 식생활양식, 주생활에 관한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의생활양식

1) 한복착용 및 소유실태

여성의 한복착용정도를 묻는 질문에 13.3%가 '거의 입지 않는다', 78.7%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입는다'고 답하여 한복이 일상복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유하고 있는 한복 수도 23.1%는 가지고 있지 않고, 39.9%가 1벌, 24.1%가 2벌을 가지고 있어 전체의 90%가 2벌 이내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한복착용은 94.8%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중 36.4%는 본적도 없다고 응답하여 남성한복은 남북분단이후 곧 북한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한복이 비교적 오랫동안 착용되어온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특이한 것으로, 정치적 이념의 강조를 위하여 제복이 착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 의복소유 실태

의복소유 실태는 개인차가 심했으나, 겨울내의와 양말 등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용과 외출용 의복에서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내의를 3벌 이상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25.3%에 불과하였으며, 37.3%가 1벌을 소유하고 있었다.

외출복으로는 잠바가 가장 많았으며(35.9%), 군복도 10.1%에 달했는데, 이는 응답자중 군 출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출용 정장은 59.5%가 2벌 이하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복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부족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7%, '약간 부족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4%였으며, 36.7%는

'별로 부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실제 소유한 의복의 양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족하다는 인식이 매우 낮은 반응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복에 대한 욕구가 아직 저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부족했다고 응답한 의복의 종류가 의복에 대한 부족감이 높았던 사람들이 양복, 정장, 외출복 등을 지적한데 반하여, 별로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겨울옷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복에 대한 사회심리적 욕구는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상태에서는 의복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일부 사람들이 사회심리적 욕구를 가져 의복에 대한 부족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옷의 종류로는 외출복 정장(10.8%)이 가장 많고, 외국산옷(8.3%)과 속옷(7.0%)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높아 역시 양분화현상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한복'이라는 응답이 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하는 옷'이라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3) 유행현상

북한에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41.6%)'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17.5%)', '거의 다 따라간다(11.0%)'를 합치면 전체의 70.1%가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4.7%는 일부에서만 따른다고 응답하였고, 사람들이 유행을 거의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5.2%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한사회에 유행이 존재함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이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행이 먼저 시작되는 지역으로는 평양이 절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50.4%), 그밖에 외국과의 접촉이 가능한 국경도시(17.1%)나 항구도시(9.2%)가 언급되었다. 유행하는 옷을 먼저 입는 사람들로 북송교포(16.4%), 외국출입자(16.0%)를 응답하여 역시 외국과의 접촉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당간부(14.3%), 예능계종사자(12.2%), 간부자녀(9.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이 사회적으로 상류계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행전파에 계층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방국가에서 1960년대 이전에 나타나던 현상으로 여유소득을 갖는 중류층이 부상되면서 사라진 현상이다. 연예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전파매체를 통한 유행정보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유행을 보여주는 잡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63.2%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생활문화'라는 책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유행이 존재하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응답한데 비하여 유행하는 스타일에 대한 응답은 매우 다양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패션과는 동떨어진 '잠바(33.5%)'가 가장 많았으며, 김정일식 잠바도 51%를 차지하였고, 막연히 '외제옷'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2.0%에 달했다. 비교적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 패션성이 있는 옷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나팔바지(5.7%)와 미니스커트(3.2%)도 지적되었으나 비율이 낮아 북한에서의 유행은 세계적인 유행과는 동떨어진 폐쇄된 사회내의 높은 동질성으로 보인다.

4) 의복 마련방법

의복을 마련하는 방법은 상점에서 사거나(8.3%), 집에서 만들어 입는 경우(16.0%)보다 옷감을 사서 맞추어 입는 경우(54.9%)가 훨씬 많았다. 그 밖에 암거래로 사거나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기도 하였다. 1년에 구입하는 의복의 수는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나 1년에 1벌(21.5%), 2년에 1벌(13.9%), 1년에 1-2벌(10.8%)이 많았고, 거의 없는 경우도 10.1%인 반면 3.8%는 6벌 이상 구입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구입의복수는 1년에 1.32벌로 나타났다.

5) 의생활관리 및 만족도

세탁할 때 사용하는 비누의 종류는 고체비누(46.2%)가 가루비누(8.2%)보다 훨씬 많았으며, 가내 제조비누도 16.5%를 차지하였다. 빨래를 삶아 빠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삶지 않고 그냥 한다(13.3%)', '거의 삶지 않는다(1.3%)'로 나타나 삶지 않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빨래를 삶아 빠는 방식이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의 보급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없다(68.9%)', '동네에 한두 집(26.4%)'으로 응답하여 거의 보급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옷을 잘입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4.4%)'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3.1%)'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여 옷을 잘입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으며(0.7%)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53.0%였다. 만족하지는 않아도 크게 불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6.4%에 달하여 의복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의복의 상징성 및 남한과의 비교

북한에서 당고위직이나 잘사는 사람들의 외모특징으로 몸이 좋고 배가 나온 것(14.2%)이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차림과 관련된 것으로는 정장, 쓰메르양복¹⁾이 13.8%, 김일성 뺏지 12.7%, 잠바 12.7% 등이 지적되었으며, 그밖에 고급천(10.8%),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9.7%), 김정일 스타일(4.9%) 등으로 응답하여 북한사회의 독특한 상징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북한의 식생활양식

1) 체형에 대한 선호도

외모에 대한 질문에서 뚱뚱한 외모에 대해 조사대상자(158명)의 28.7%가 선호한다고 답하였고 배가 나온 외모에 대해서도 15.3%가 선호하였다. 날씬

1) 우리가 흔히 '인민복'이라고 부르는 스타일로 북한에서는 인민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한 외모에 대한 선호도는 166%에 불과하였으며 근육질의 외모와 큰 키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51.0%와 36.3%에 달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날씬한 모습보다 뚱뚱한 모습을 더 좋아하고 일부는 배가 나온 모습까지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본 연구자들이 수행한 탈북자의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북한주민들이 과다한 체중을 선호하는 태도는 어려운 식량형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일부는 남한에서 좋아하는 날씬한 모습을 선호하여 북한주민들도 세계적 체형 선호 추세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근육질의 모습이나 큰 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를 선호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체형 선호도가 신장과 체중,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출신도별, 가족의 소득과 지출, 가족의 수와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체중과 연령, 성별 이외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날씬한 외모의 선호도에 있어서 현재 체중이 60kg미만인 집단은 60kg이상인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으나(각각 30.3%와 67%, $p<0.001$), 신장(160cm미만 대 160cm이상)이나 북한에서의 체중(60kg미만 대 60kg이상)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북한에서의 신장이나 체중은 개인의 체형 선호도와 상관이 없었으나, 남한에서의 체중은 개인의 체형 선호도에 따라 상관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또한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40대 또는 5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뚱뚱함이나 배나옴에 대한 선호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한에서의 선호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질을, 또 여성은 남성보다 날씬함을 더 선호하여 성별로 체형선호 태도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2) 특별한 날의 음식 구성

결혼식이나 환갑, 백일상, 설날과 추석 등 특별한 날 꼭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떡이나 술(90%이상), 쌀밥이나 나물, 과일, 지짐(80%이상),

국수나 국(70%이상)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 냉면(34.4%), 생선과 건어물(24.1%), 육류(23.4%), 떡국(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당과류, 닭, 계란, 만두, 두부, 잡채, 순대, 라면, 튀기(강정), 과일, 산채, 향나무 등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과반수의 북한주민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쌀밥과 국, 지짐, 국수와 함께 떡과 과일, 술을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주민들은 국수나 냉면같은 면류를 특별한 날 많이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이 면류를 매우 좋아하는 기호 특징과 유용한 식재료의 제한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당과류나 계란, 두부, 순대, 라면을 든 점도 특이하며 라면은 특별한 날 마련할만큼 북한에서 그 위상이 높은 것 같다. 특히 건어물 중에서 문어를 지적한 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향나무나 문어와 같이 배불리 먹을 거리가 아닌 것을 챙기고 있는 점은 북한에도 우리 음식문화가 계승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별한 날에 마련하는 음식은 도시와 농촌간에 다소 달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쌀밥의 경우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85.1%와 97.3%로 나타났고 나물과 지짐, 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84.2%와 97.3%, 78.1%와 94.6%, 67.5%와 83.8%로 조사되었다($p<0.05$). 이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특별한 날에는 쌀밥과 나물, 지짐, 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을 드러낸 것으로서, 아직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우리의 전통적 음식문화를 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향토음식

탈북자들이 기술한 북한의 자랑거리 음식으로는 냉면이 가장 많았고(29.7%), 그 다음으로 만두(20.9%)와 순대(19.0%), 떡류(15.8%)의 순이었다. 만두는 감자가루로 만든 것이 특색이라 하였으며 참새만두도 있었다. 순대 재료도 매우 다양하여 찹쌀순대 외에도 두부순대, 개순대, 낙지순대, 대합순대 등이 거명되었다. 떡 종류로는 송편, 찹쌀떡, 설기, 찰떡, 튀기(강정), 썩떡, 절편, 시루떡을 들었으며 가리떡(언감자떡), 실떡, 술기떡, 발파떡과 같은 우리

에게 익숙하지 않은 떡 종류도 있었다.

또 국수류(13.9%)와 식혜(10.1%)도 향토음식으로 지적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역시 면류의 선호와 활용이 큰 것 같다. 국수는 옥수수나 감자가루(농마, 감분)로 만들며 량강도의 농마 국수가 유명하다고 응답하였다. 식혜는 가지미, 명태, 도루묵어, 멸치로 만들었으며, 이 음식은 남한에서도 색다른 북한의 향토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밖에 탈북자들은 북한의 향토음식으로 두부밥과 묵을 들었고, 묵에는 도토리묵, 메밀묵, 기름골묵 등을 들었다. 기타 향토음식으로 깎두기, 평안도물김치, 찐장지(배추, 무우, 오이) 등 김치류를 지적하였고, 오그랭죽, 칼제비국, 쟁반국수, 전골, 순대국, 신선로, 온반(국밥) 등을 거명하였다. 또한 명태도리, 대동강송어탕, 염소불고기, 느릅지짐(돼지고기), 꿩고기완자 등도 언급되었다.

북한 향토음식의 특징은 면류가 많은 점과 단고기(개고기)를 식재료로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 점이다. 냉면과 국수류를 북한의 자랑거리 음식으로 지적한 사람이 43.6%에 달하였으며, 거명된 단고기 음식으로는 개순대와 개엿, 개장, 개장국(보신탕), 단고기국밥 등으로서 이를 지적한 사람이 82%에 달하였다.

4) 식생활 정보의 전달 주제

잘 만드는 요리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4.4%), 그 다음이 군대(26.8%)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동네이웃이나 친구, 시어머니, 책, 형제, 할머니의 순으로 답하였다(각각 4%미만). 또한 새색시가 음식 만드는 법을 누구에게 묻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친정어머니께 묻는 경우가 77.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시어머니(35.7%), 친구나 동네이웃(각각 17.2%), 직장동료(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책(4.5%), 텔레비전(3.2%), 형제와 할머니(2.5%)로 답하였는데, 요리책은 거의 없지만 '여성생활문화', '천리마잡지'와 같은 잡지가 있으며 텔레비전에서도 간혹 요리를 다루는 교양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잘 만드는 요리나 요리정보를 친정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익히게 되는 점은 식생활 관련 지식과

행동의 전달 과정을 대변하며 모녀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암시한다. 새색시 때 시어머니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아서, 결혼하면 시댁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사고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잘 만드는 음식을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어릴 때 먹던 음식에 대한 기호가 강하고 주부의 기호가 음식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부가 친정에서 먹었던 음식을 자주 만들고 따라서 잘 만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식생활 정보원으로 동네이웃이 다소 많은 것은 우물가 문화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이한 점은 잘 만드는 요리를 군대에서 배웠다는 것으로서, 군대가 얼마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깊숙히 영향을 미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가정에서보다 군대에서는 식자재가 비교적 풍부하므로 가정에서는 연명의 의미로서 음식을 다루게 되는 반면, 군대에서는 보다 풍부한 먹거리를 다루는 데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3. 북한의 주거생활양식

1) 주택유형과 주거규모

북한의 주택은 옛날집, 독집, 하모니카집, 아파트 등으로 분류되는데 옛날집은 한옥형태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독집은 옛날집이 아닌 단독주택을 말한다. 하모니카집은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한 연립주택인데, 개별가구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가지런히 있는 것이 하모니카와 유사하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개별변소가 없다. 아파트는 가장 많이 보급된 주택유형으로 주택설비 수준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밖에 합숙소, 군병영, 성냥곽집 등이 장기간 거주장소로 이용된다. 성냥곽집이란 강제추방되는 경우에 거주하는 열악한 작은 공간을 말한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거주하였던 주택은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으며, 독집 24.5%, 하모니카집 21.1%, 옛날집 7.8% 등의 순으로, 아파트나 하모니카집 등의 공동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당간부나 북송교포들이 사는 집을

지칭하는 독집은 지은 지 오래된 한옥을 지칭하는 옛날집에 비해서 주거수준이 높다.

북한에서는 방의 수를 1칸, 2칸이라고 세는데, 부엌을 제외한 방이 2칸 있는 집이 가장 많으며(51.0%), 방이 1칸인 경우는 14.0%로서 탈북자의 65%가 2개 이하의 방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방의 수에서도 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여 방 3칸은 23.6%, 4칸은 11.5%로 35%가 방을 3개 이상 사용하였으며 평균 방수는 2.4칸이었다. 주택규모(건물평수)는 11-20평이 가장 많으며(37.3%), 10평 이하가 10.7%로 48.0%가 20평 이하이나, 21-30평(24.0%)이나 31평 이상(28.0%)도 적지 않았다.

2) 주거공간의 구성

부엌과 방 이외의 공간이 전혀 없는 주택이 20.4%나 되어 북한주택의 공간구성이 매우 단순하며 기본적인 공간조차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엌과 방을 제외한 공간(복수응답)으로는 창고가 제일 많으며(73.2%), 다음이 변소(50.3%)이다. 개별변소가 없는 경우에는 폐내기식 공동변소를 사용한다. 그밖에 주택에 있는 공간은 세면장(43.3%), 베란다(41.4%), 욕실(29.3%), 전실(22.9%), 거실(11.5%), 다락이다. 전실은 출입문 가까이 있는 방을 말하는데, 전실이 있으면 좋은 집에 속한다. 거실은 별로 없으며, 거실, 욕실, 화장실이라는 용어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서는 옥외창고에 갈탄이나 구공탄 등을 보관한다.

3) 입사증 제도

북한에서는 결혼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청하면 입사증을 발급해 주는 것(내외통신, 1994)으로 되어 있으나 탈북자의 59.6%만이 입사증으로 배정된 집에서 살았으며 40.4%가 그렇지 않았다. 입사증 배정이 아닌 집으로는, 부모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집(개인집이라고 함)이 가장 많으며(32.3%), 다음이 부모가 배정 받아 살던 집(24.6%)이다. 혼인 후 입사증을 받지 못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데, 방이 부족하여 자녀부부가 다른 가족과 같은 방을 사용해야 한다. 그 밖에 돈을 주고 산 집(23.0%), 자기 돈으로

지은 집(11.5%), 자전거나 냉장고와 교환한 집(4.9%) 등에서 거주하였다. 집을 사고 팔거나,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이 합법적은 아니나, 북송교포를 포함한 일부계층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 이로써 모든 주택은 국가소유이고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부족을 반영하는 다른 예로 기존의 입주자가 사용하던 방을 하나 내놓게 하여 다른 세대가 들어가 살게 하는 제도인 동거살이를 들 수 있는데, 탈북자의 22.1%가 동거살이의 경험이 있으며, 동거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48.4%).

입사증은 직장관계로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29.9%), 다음이 혼인이나 분가(28.2%), 돈을 주고 구입(6.8%), 부모에게 물려받음(6.0%)의 순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집을 교환하면서 받거나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받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였다. 돈을 주고 개인집을 구입하여 입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5.1%)고 응답한 경우도 있어서 입사증은 거주할 집에 대한 권리증으로 주택소유의 의미는 없으며 기거할 집이 있다면 필요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4) 주거설비 수준

북한의 주거설비 수준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급배수시설이 있는 주택은 비교적 많은 편(82.1%)이나, 급수시설이 있더라도 시간물(시간제급수라는 북한용어)이거나 단수가 잦으며, 전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또, 급배수시설이 없는 경우(7.7%)도 있으며, 수도는 없고 배수시설만 있거나, 수도는 있는데 배수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변소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폐내기식 공동변소를 이용하거나(39.6%), 폐내기식 개별변소를 이용(22.3%)한다. 그러나 사기변기가 설치(수세식화장실이라는 북한용어)되거나(16.5%), 사기변기와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경우(21.6%)도 있어서 계층간에 주거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목욕은 공동목욕탕 이용이 가장 많으며(39.2%), 집에서 합지목욕(비닐주머니에 더운물을 채운 후 이용)을 하거나(32.9%), 욕실에서(28.0%) 한다. 욕실

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51.0%), 욕실이 있더라도 시간물이거나 온수공급이 안 되며(32.4%), 급수가 안 되기도(2.1%) 한다. 욕실에 냉온수가 공급되는 경우는 14.5%이다.

조리는 주로 부엌 부뚜막(50.3%)에서 하며, 간이 작업대(26.5%), 입식작업대(15.2%), 부엌바닥이나 방바닥(7.9%)이 조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수납공간 확보에 유리한 부엌의 입식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부뚜막과 같은 높이로 널마루를 깔아서 조리 및 다른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다가 필요시에 마루를 짓혀놓고 부엌바닥으로 내려가서 불을 때게 만든 북한식 공간활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5) 주거만족과 주거의식

북한에서의 주거생활에 만족하였던 탈북자는 매우 적으며(9.7%), 불만족이 35.7%이고,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크게 불만은 없었던 경우가 54.5%이다. 위에서 언급한 주거상황과 비교해 보면, 주거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로써 주거만족, 불만족은 주거상황 자체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주거규범과 자기가 처한 주거상황을 비교하여 생긴 차이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이라는 Morris와 Winter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열악한 주거상황이지만 북한 주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주거규범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거불만족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거생활에서 난방 및 취사연료가 부족하고 질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불만요인이었으며(29.7%), 급배수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급수량이 부족하다(15.2%), 방이 부족하고 집이 좁다(11.4%), 거주지역의 환경이 나쁘다(10.8%), 욕실이 없다, 공동변소가 멀고 시설이 나쁘다, 집수리를 할 수 없다, 전기가 자주 나간다는 등으로 밝혀졌다.

주택에서 개선하고 싶었던 사항(복수 응답)은 난방 및 취사연료의 개선(41.8%), 장판지와 벽지 교체(30.4%), 노후부분의 수리(24.7%), 온수설비 마련(1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개별변소 마련

(6.3%)이나 세면장 설치(10.1%), 방 넓히거나 방수 늘리기(4.4%), 사기변기 설치(3.8%)가 희망사항 순위에서 밀려난 이유는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장판지나 벽지를 바꾸려는 이유도 구공탄(또는 갈탄)의 질이 나빠서 연기로 시커멓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도 주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온수설비 마련이 18.4%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욕실이 있는 집에서 살았던 상류층 탈북자나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된다.

주택관련 항목 중에서는 주택설비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39.9%), 다음이 거주지역(33.5%), 방수(31.6%), 주거규모(24.7%), 주택소유권(22.2%), 주택유형(9.5%)의 순으로 밝혀졌다. 남한에서는 중요도순위로 1위를 차지하는 주택소유권이 북한에서는 5위로 나타난 것은 '주택은 국가소유'라는 주거규범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남한에 와서 북한의 주택과 관련하여 차이를 느꼈던 점으로는 난방 및 급배수, 화장실, 욕실 등의 주택설비 수준이 북한주택에 비해서 높다(44.9%)는 것이 1순위이었다. 다음으로 집이 큰 재산이며 집을 부의 표현수단으로 생각한다(18.4%), 방의 수가 많고 주거면적이 넓다(11.4%), 주택의 매매가 자유롭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10.8%), 전세, 월세, 주거관리비 등의 비용이 높다(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한의 주택에 대한 사회제도나 인식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북한의 열악한 주택설비 수준, 국가소유의 개념이 유지되는 북한주택, 주택거주 허가제라 할 수 있는 입사증 제도, 그리고 전기나 물 등 공급의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용량에 관계없이 소액의 세금만 내면 별도의 주거관리비가 필요 없는 제도 등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임을 알 수 있다.

6) 주거행동

주거생활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한 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참았다고 응답한 예가 가장 많았다(31.3%). 다음으로는 주택의 노후부분 수리, 상하수도 설치, 울타리 만들기 등을 하거나(30.4%), 딸감이나 석탄을 구하여 난방에 이용하거나(15.2%),

돈을 모아 새집을 장만하거나 비법(불법이라는 북한용어)으로 좋은 집을 배정 받아(5.4%) 주거불만족을 줄였다. 그 밖에 집을 고치려고 돈을 벌었다는 경우(5.9%)도 있어서 주거불만을 줄이려는 행동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의지는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이동 회수는 1-2회가 50.0%로 가장 많고 3-4회가 26.1%이며 이동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12.3%나 된다. 5회 이상이 다소 있기는 하나(11.6%), 주거이동이 이렇게 적은 것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 자체를 통제하는 북한 고유의 사회제도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적극적인 주거행동 대신에 주거상황은 그대로 둔 채로 주어진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려는 주거적응이 일반화되어 있는 북한문화도 이에 한 몫을 한다고 판단된다.

주거이동의 사유를 보면, 직장이동으로 인한 주거이동이 가장 많으며(37.3%), 다음이 추방, 소개, 강제철거로 인한 이동(18.4%), 결혼 또는 분가로 인한 이동(12.0%),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는 상향이동(10.8%)의 순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동거살이 탈피(4.4%), 경제적 이유(2.5%), 친정/시집과의 합가(1.3%) 등이다. 이로써 북한에서의 주거이동은 대부분이 강제적 성격을 지닌 이동으로 주거규범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이동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주거이동이 아니라 직장이동, 추방이나 소개 등 제도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4.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북한 생활양식(의·식·주 생활)의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형식을 통해 남한에 와서 생활한 후 의·식·주 생활 중 북한에서의 생활과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탈북자들이 지각한 각 생활양식에서의 차이점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²⁾.

IV. 결론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의 장기적인 단절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문화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 현상은 몇 가지 원인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사회 체제의 영향을 가장 큰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북한사회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전근대적인 전통의 힘에 더 많이 영향받는 것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사회의 절대적 빈곤에 의한 생활의 궁핍화에 기인한 남북한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이질화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의 의생활양식은 다른 생활양식에 비해 이질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착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상태에서는 의복이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며, 의복에 대한 사회심리적 욕구가 반영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들의 한복 착용은 오랫동안 이루어진 반면, 남성들은 제복 위주로 한복 착용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임을 감안해볼 때, 북한에서의 의생활은 전통이 잔존하기는 하지만,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 주민의 식생활 현실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다른 여타의 생활영역에 비해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같은 현실은 본 연구에서도 여실히 반영되어 북한 주민들은 영양이라는 질(質)을 고려하는 식생활이라기 보다는 끼니를 때우거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量)의 개념으로

2) 응답자들이 답한 내용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응답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시도하였다. 응답내용은 주로 남한사회에 대한 것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북한임을 지적하였다.

<표 1> 탈북자들이 지각한 각 생활양식에서의 남북한의 차이점

구분	내용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과 시장 그 어디나 옷이 쌓여 있다. - 남한사람들은 옷이 획일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입는다. - 옷의 종류가 다양하고 남자들이 격식있는 정장을 많이 입는다. - 여성의 노출이 심하고 여성의 옷이 단정치 못하다. -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 중 옷의 종류와 스타일에 관한 것, 옷의 상표, 외래어, 패션용어, 소재에 관한 것 등을 알아듣기 힘들다. - 남한의 의복은 질이 좋고 다양한데 사람들은 월수입에 비해 옷을 대단히 많이 구입한다. - 북한에서는 의생활같은 것을 생각할 처지가 못되고 옷입는 문제도 통제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 남한에서는 옷을 자유자재로 입을 수 있고 특별한 장소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입는다.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식량, 부식량이 너무 풍족하고 량비가 심하다. -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 남한에서는 양념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음식의 고유한 맛이 없다. -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에서는 굶어죽는 이웃과 어린이가 많다는 것이다. - 남한에서는 간식이 보장되어 있다. - 북한에서는 "식의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먹는 것이 중시된다. - 남한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철 남새와 과일을 떨구지 않는다.
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며 온수설비가 구비되고 사기번기와 욕실이 설치되어 있다. - 주택마다 더운물, 찬물이 시간에 관계없이 나오며, 욕실,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싱크대, 냉장고 등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동되었다. - 남한의 일반 임대아파트 주택설비가 평양의 최고급 주택설비보다 낫다. - 자기 마음대로 주택을 사고 팔 수 있으며, 각자 능력에 따라 나쁜 집, 좋은 집을 선택한다. - 자기 기호에 맞게 집을 짓거나 기호에 맞는 주택을 리용할 수 있다. - 주택을 돈으로만 사야하고 엄청나게 비싸다. 남한의 주택은 철저히 부의 상징이다. - 주택의 관리유지비가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 북한은 입사증만 있으면 약간의 세금만 내는데, 남한은 입주시 많은 금액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낸다. - 방의 크기가 북한에 비하여 너무 크다. - 북한에서는 주택하면 방수를 따지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큰가(평수)를 따진다. - 남한에는 개인방과 거실이 있는 것이 북한과 다르다.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태를 제외하면 북한은 전체적으로 남한보다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전통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북한의 주거생활 수준이 열악한 주요원인은 주택내의 기본적인 주거공간이 미비하며 주택설비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개별변소나 욕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수도물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잦고, 연료부족으로 취사와 난방에 어려움이 많다. 또,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입사증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거주할

집을 마련하려면 편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거불만족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북한사회의 주거규범이 낮고, 식생활문제의 해결이 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간주된다. 주거불만을 해소하는 주거행동으로도 적극적인 방법인 주거이동이나 증개축을 시도하는 대신에 주어진 현실에 자신을 맞추는 주거적응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경향으로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식생활영역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의 생활표준과 실제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사회에서는 이상적으로 설정된 생활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현실생활과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단초를 모색해 보려는 취지에서 남북한 이질화 현상의 양상을 주로 북한 사회의 생활양식(의, 식, 주생활)을 통해 경험적 조사분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로 북한사회와 남한사회의 생활문화 영역을 구체적으로 대비해 봄으로써 이질화된 부분을 보다 명백히 확인하고 동시에 유사성이나 수렴의 근거를 모색해 보는 작업이 후속연구로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한의 생활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사회체제의 성공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왕배(1995). "일상생활의 철학적 의미와 생활정치". 한국공간환경 연구회(편),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서울: 대운.
- 2) 박영숙·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최연실(1997). "탈북자 면접을 통한 북한 주민의 건강 및 식품섭취실태 탐색".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3): 396-405.
- 3) 박재환·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편(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4) 박혜란(1996). "남북한 여성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제4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81-112.
- 5)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6) 오기성(1997). "북한문화의 구조분석을 통해본 남북한 문화통합". 남북한사회통합론. 서울: 삶과꿈.
- 7)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8)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대안가정학회지 35(6): 289-315.
- 9)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1998).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 대안가정학회지. 발표예정.
- 10) 장성수·윤혜정·김진균(1998). "북한의 주택실태와 통일 후 주택건설수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3): 43-50.
- 11) 전경수(1994).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 12) 정근식(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일상생활과 문화. 한국사회사학회(편),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 지성사.
- 13) Harbermas, J.(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on action*, Vol 1 & 2. Polity Press.
- 14) Sorokin, P.(1947). *Society, culture, and personality*. N.Y.: Harper & Brothers.
- 15) Tylor, E. B.(1958). *Primitive culture*. N.Y.: Harper & Brothers.